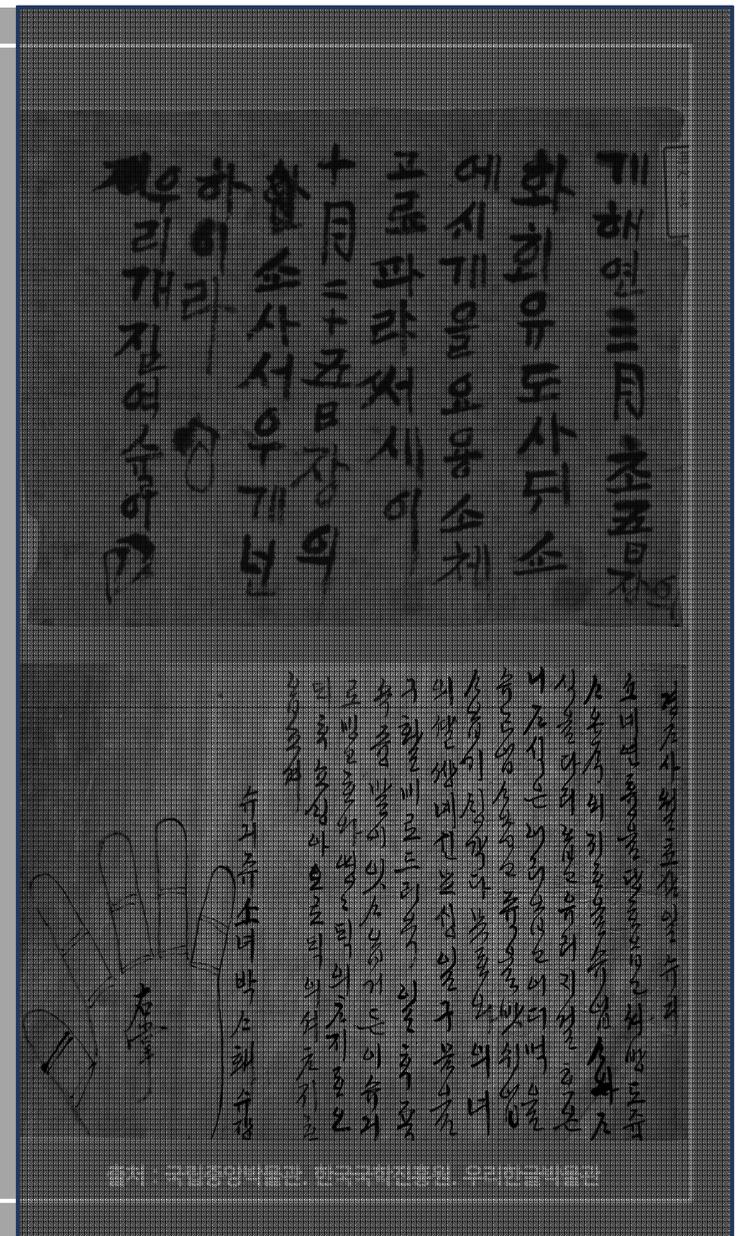


# Cases and Values of Vernacular Use by the Middle and Lower Classes in the Joseon Dynasty



**Jo Jeong-a**  
 Pusan National University  
 hangeulletter@gmail.com





# Who?

조선시대 한글로 기록된 자료의  
작자와 독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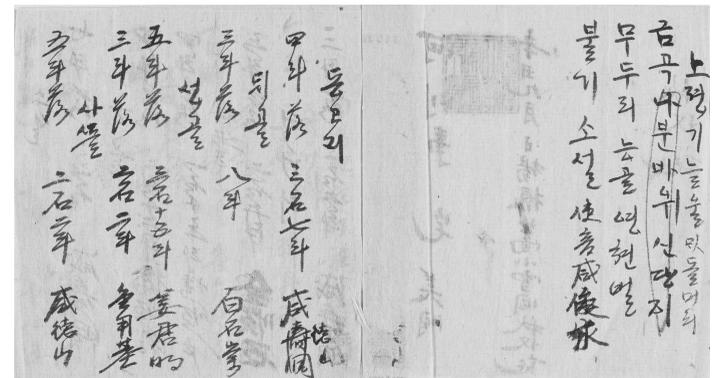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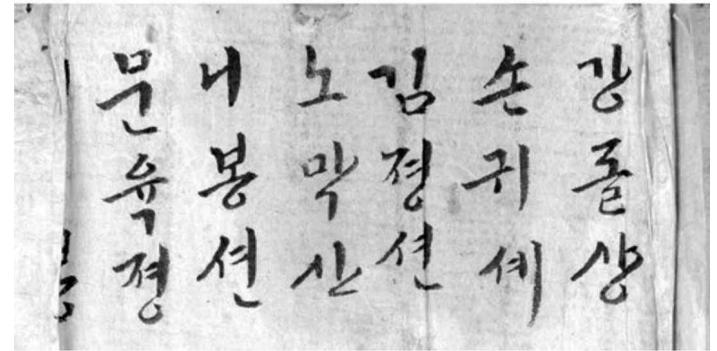
# Really?

조선시대 중·하층민이 직접  
한글을 읽고 썼을까?

# Why?

조선시대 중·하층민의 한글 자료는  
왜 잘 알려져 있지 않을까?

조선시대 한글로 기록된 문헌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  
 기록의 조건 & 보존의 조건 & 연구의 조건



이미지 출처 : 안승준 선생님 제공.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김홍도의 타작 『단원풍속도첩』  
소장처 및 이미지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여러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조선시대 중하층민의 한글 기록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은 수량!  
사(史)적인 연구에서 수량은  
과거의 진실에 접근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조선 중하층민 한글 기록은  
비록 " [ ] " 하지만,  
" [ ] "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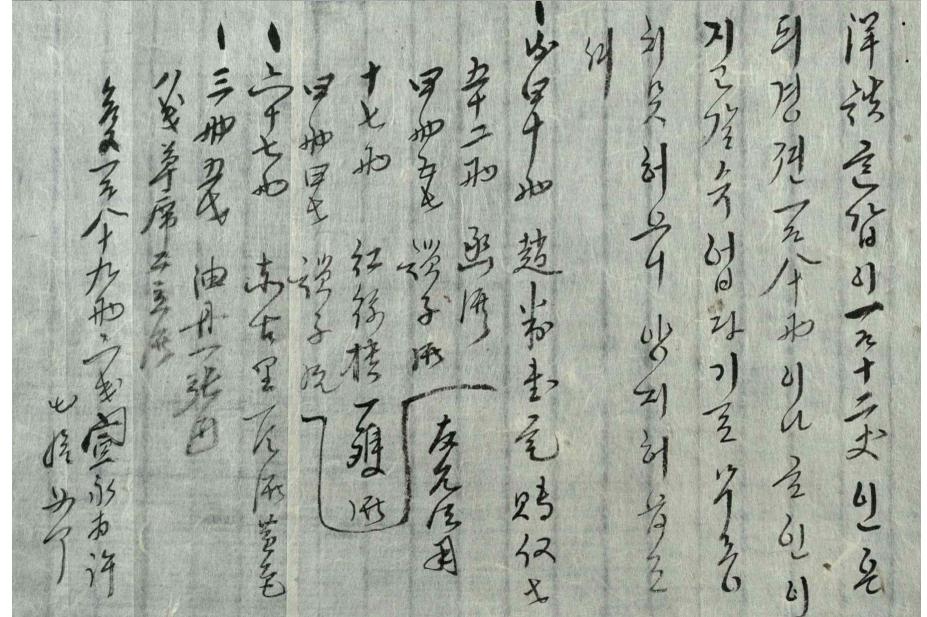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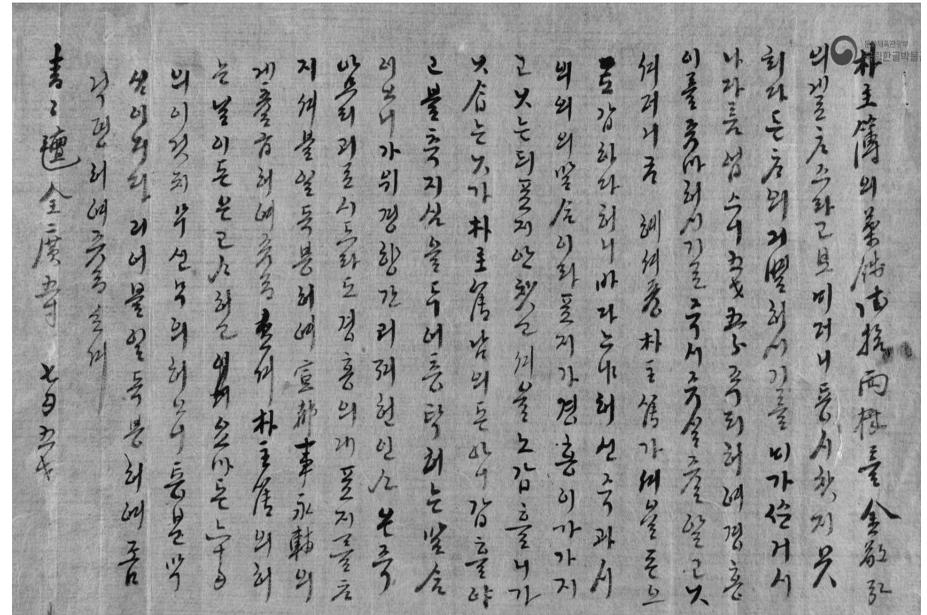
# 1. 상인(商人)의 편지

- 시전상인(포전상인) 배동혁의 편지
- 배동혁 편지 7종, 기타 편지 12종(조영준 2016)
- 작성시기 : 1878~1898년
- 편지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씀.  
순한자 표기 편지는 있으나 순한글로 표기된 편지는 없음.
- 인명, 관직명, 숫자, 단위 등 정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한자로 표기하는 경향

위: 기축년(1889) 배동혁 편지  
국립한글박물관 소장(한구2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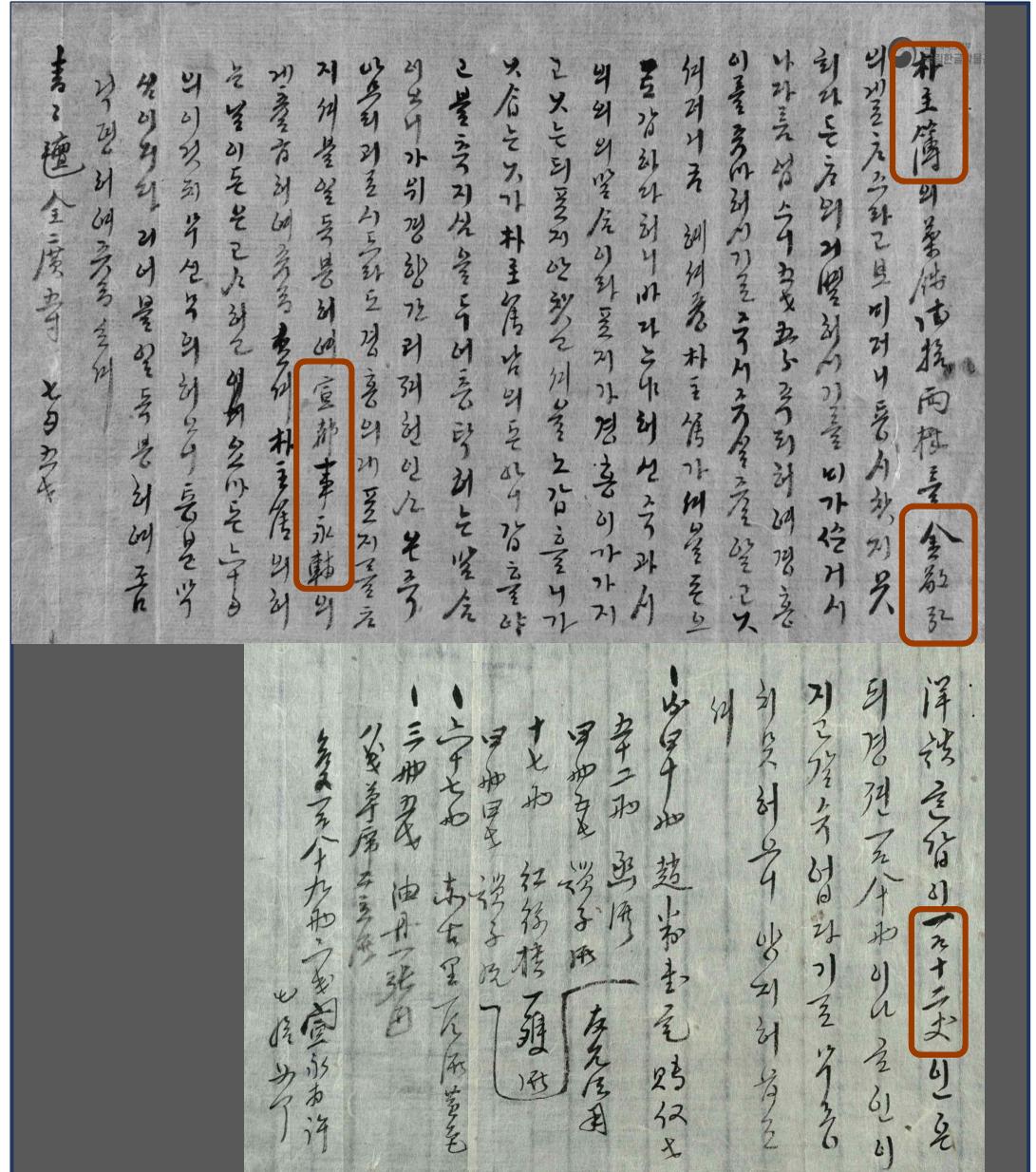
아래: 임진년(1892) 환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한구2855)

소장처 : 국립한글박물관 / 이미지 출처 : 디지털 한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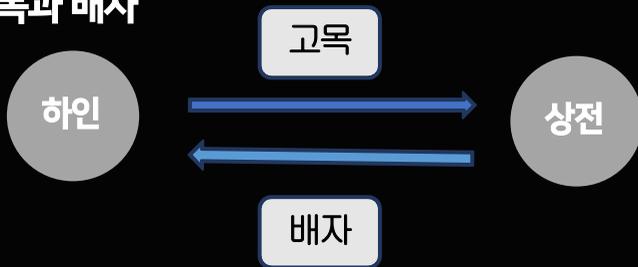
중앙의 육의전과 일반 좌상은 서리(胥吏)와 비등한 존재였는데 서리란 조선시대 관청에 소속된 이속(吏屬) 또는 아전이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상인' 항목)

- 시전상인이라는 신분, 그리고 직업 특성에 따른 글쓰기 방식? 필사 습관?
- 편지의 목적이 물품이나 금전 거래에 대한 의사소통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소통이 중요  
인명, 관직, 금액, 날짜, 단위 등은 필수 정보이므로  
정확한 표기에 효과적인 한자로 표기?



## 2. 고목(告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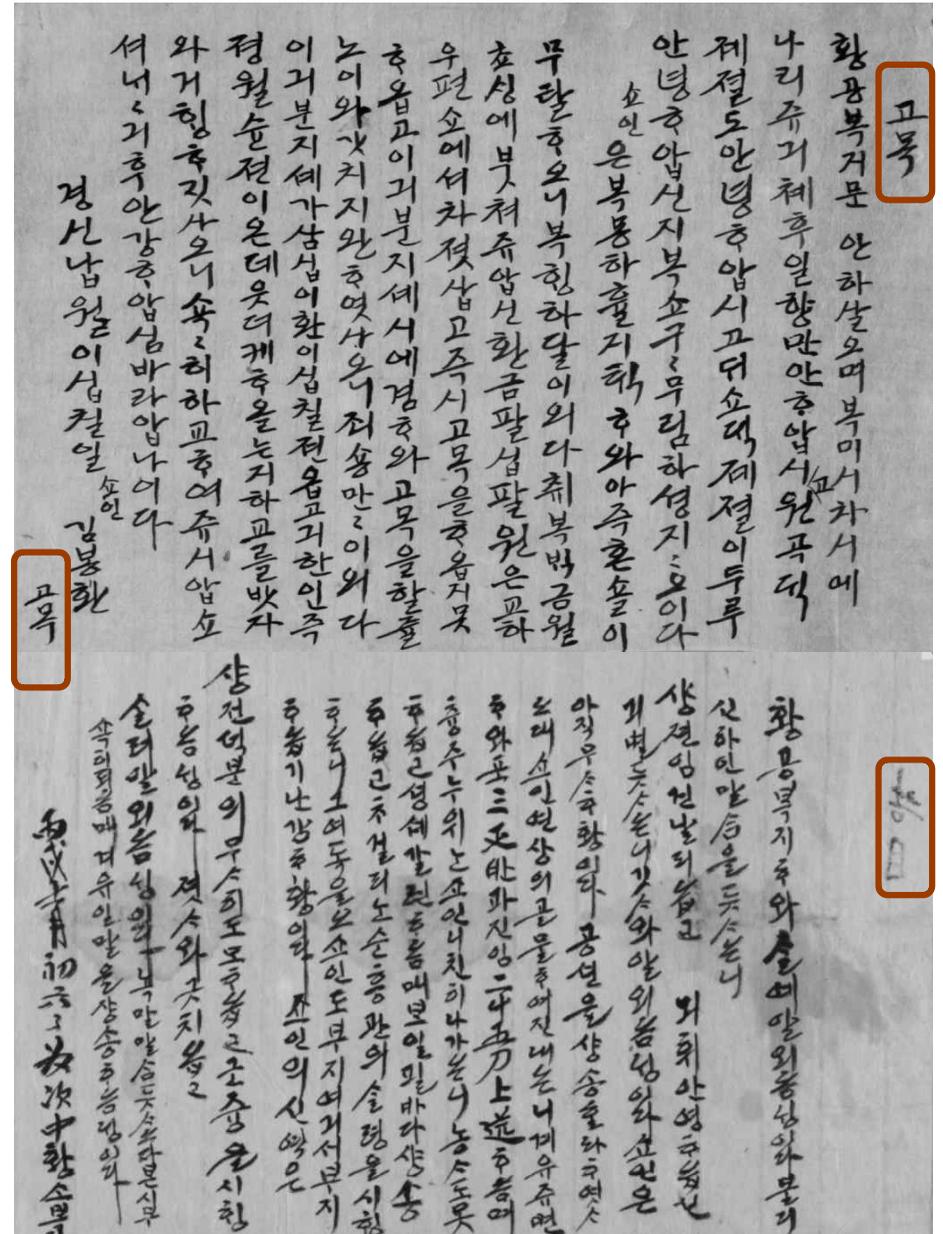
-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 결과나 혹은 문안을 올리는 형식의 고문서 (이상규 2011:236)
- 관부 문서로서의 고목과 사인 문서로서의 고목이 있는데, 관부 문서로서의 고목은 주로 한문으로 작성되지만 사인 문서로서의 고목은 한글 혹은 한문으로 작성된다. (이상규 2011:236)
- 고목과 배자



위: 경신년(1920) 김봉환 고목  
 논산 파평윤씨 명제 종가 소장

아래: 병술년(1826) 황소 고목  
 안동 의성김씨 학봉 종가 소장

이미지 출처 : 디지털장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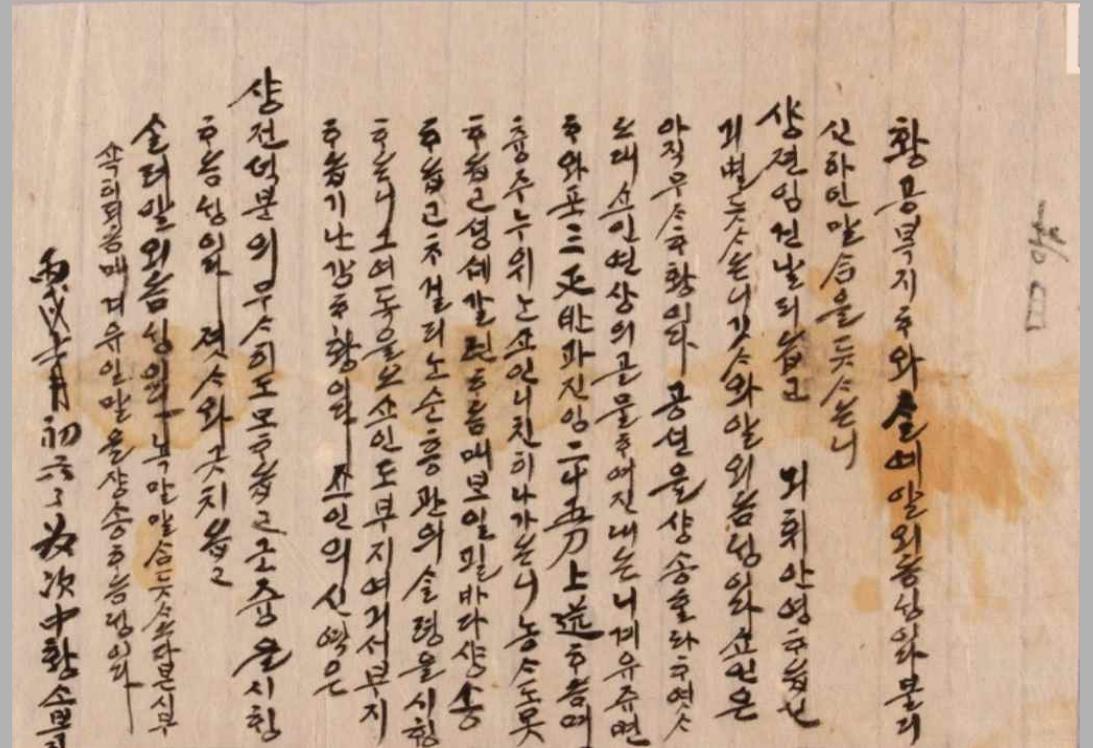


## 병술년(1826) 황소 고목 안동 의성김씨 학봉 증가 소장

### 고목

황한 마음으로 엮드려 사례를 아뢰옵니다. 부리시는 하인이 전하는 말을 들어보니 상전님 진갑날이 되었고 기체후가 안녕하시다는 기별을 들으니 기뻐하며 아뢰옵니다. 소인은 아직 무사합니다. 공션을 상송하려고 하였는데 소인 잇따른 초상으로 정신이 팔려서 지내오니 겨우 변통을 하여 **포 3필 반과 함께 25되를 상송**하며 충주 누이는 소인 친히 가서 보니 농사도 못하고 성세(成勢)가 가련하니 포 1필을 받아 상송하고 다가오는 글피에는 순흥관 사령을 시행(施行)하니 그 여독(旅毒)을 저 소인도 버티기(더욱이) 여기서 버티기가 난감합니다. 소인의 신역(身役)은 상전 덕분에 무사히도모하고 군중을 시행합니다. 이만 그치옵고 살펴 아뢰옵니다. 녹말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만 본래 부족하게 되어서 겨우 1말을 상송합니다.

병술(丙戌) 12월 초6일 발행 중 황소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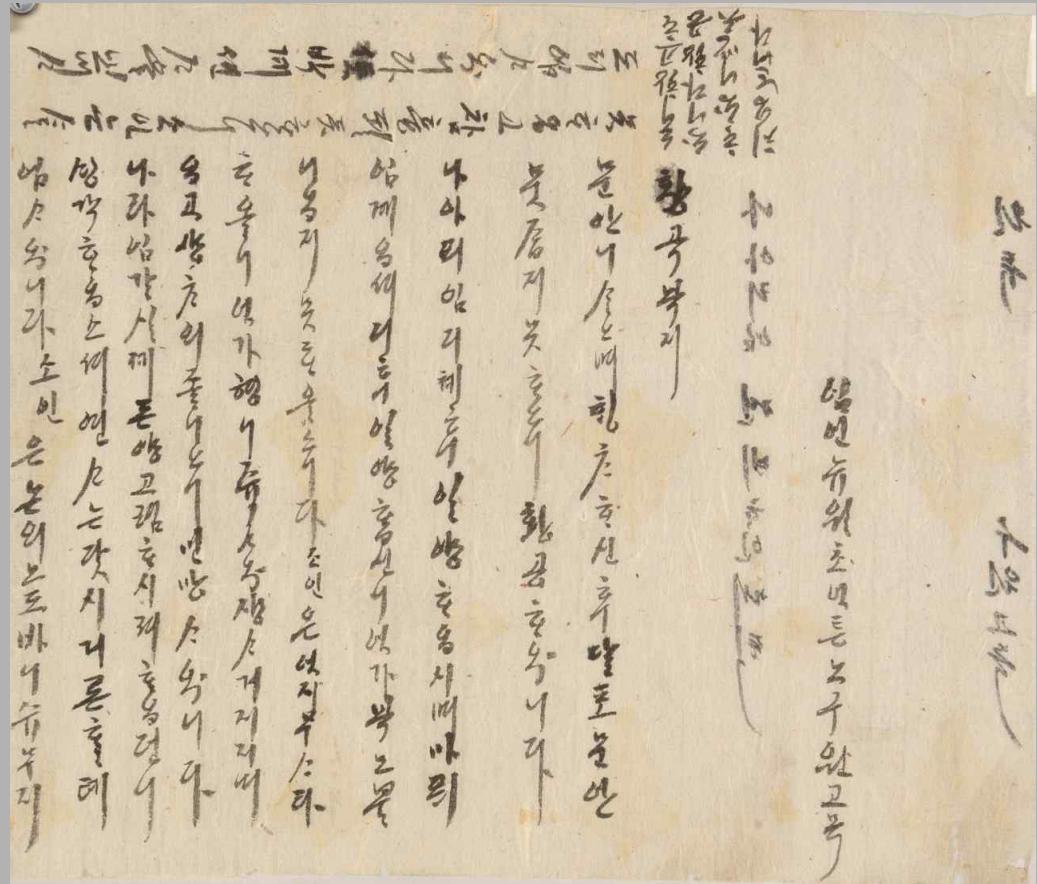


이미지 출처: 디지털 장서각 <https://jsg.aks.ac.kr>

## 임인년(1842) 노 구원 고목 안동 의성김씨 학봉 종가 소장

나리님 전배하인 대택  
원주 구원 고목

황공하옵게도 땅에 얹드려 문안 올리오며 행차하신 후 달포 문안 묻지 못하오니 황공해합니다. 나리님 기체 후 한결같으시며, 마나님 기후 일양하시옵니까. 공손히 사모하는 마음 부리지 못하겠습니다. 소인은 어찌 무사타 하오리까. 형이 죽어 장사까지 지내고 **장사 비용**에 시달리니 민망합니다. 나리님 가실 제 **돈냥 돌보아 주십사** 하였더니 생각하옵소서. 농사는 다시 거론 할 것이 없사옵니다. 소인은 눈에 모도 전혀 심지 못하고 참혹한 흉년이 될 듯하오니, 소인은 살 도리가 없사옵니다. 박계(유밀과)와 부채를 보냈사오니 황공합니다. 황공하여 이만 그치옵나이다.  
임인(壬寅, 1842년) 6월 2일. 노(奴) 구원(九元) 고목(告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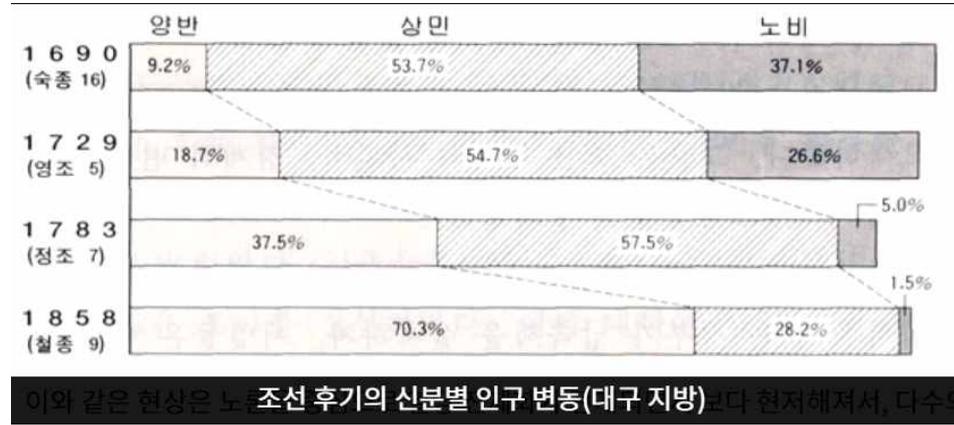


이미지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문서자료관

여기서 잠깐!

## 조선시대 노비란?

노(奴 남자종) + 비(婢 여자종)



이와 같은 현상은 노 조선 후기의 신분별 인구 변동(대구 지방)이다. 현저해져서, 다수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ta/view.do?levelId=ta\\_h62\\_0020\\_0030\\_0030](http://contents.history.go.kr/mobile/ta/view.do?levelId=ta_h62_0020_0030_0030)

### 신분의 세습

**일천즉천**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천하면 자식은 천하다)

**노비종모법**  
(노비 소생 자녀는 어머니쪽을 따른다)

###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

1592년 임진왜란  
1636년 병자호란  
1801년 공노비 해방  
1894년 갑오개혁  
사노비 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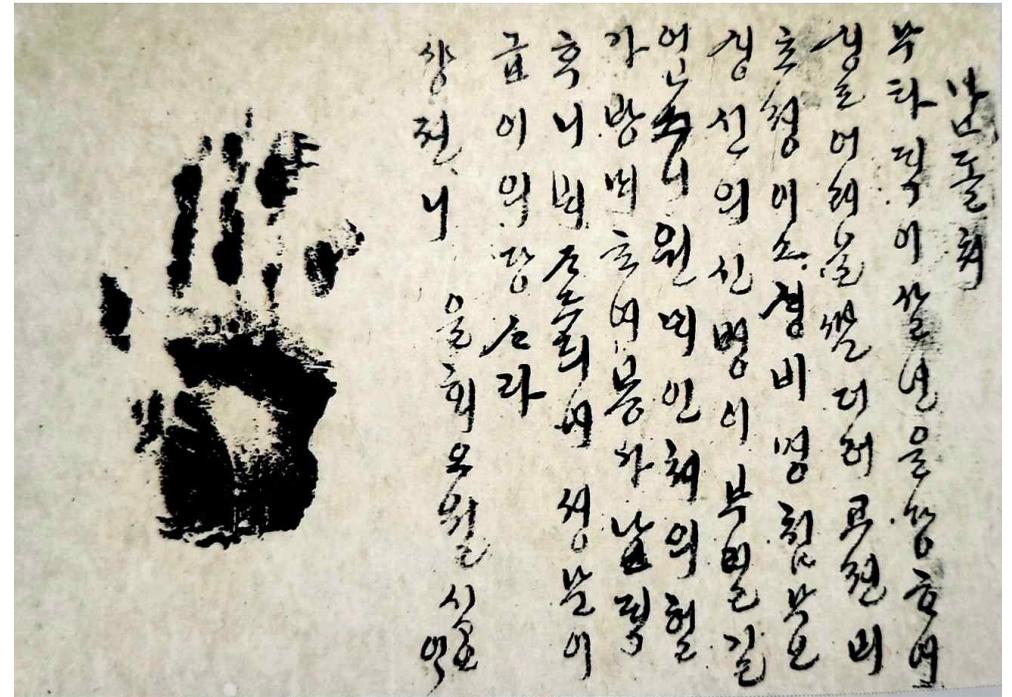


## 고목과 배자

- 배자(背子). 배지(背旨). 패자(牌子). 패지(牌旨)
- 배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어떤 임무를 위임하는 문서
- 매매 등 거래 행위에 있어서 중요.

을해년(1875) 상전 이씨가 납들에게 발급한 배자  
상전이 흥년을 당하자 생계가 어려워져서 데리고 있던 몸종 초정의 딸인 '명첩'을 팔기 위해 납들에게 발급한 위임장.

납들에게  
다름이 아니라 흥년을 당하여 살아가기가 어려울 뿐더러 교전비(몸종) 초정이 소생의 노비 명첩이는 무오생으로 내몸으로 부릴 길 없으니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험한 값으로 방해하여 받은 돈은 집에 바친 후에 배자에 의거하여 명문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을해년 5월 15일  
상전 이[수장]



소장처 :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이미지 출처: 이상규(2011), 『한글 고문서 연구』, 도서출판 경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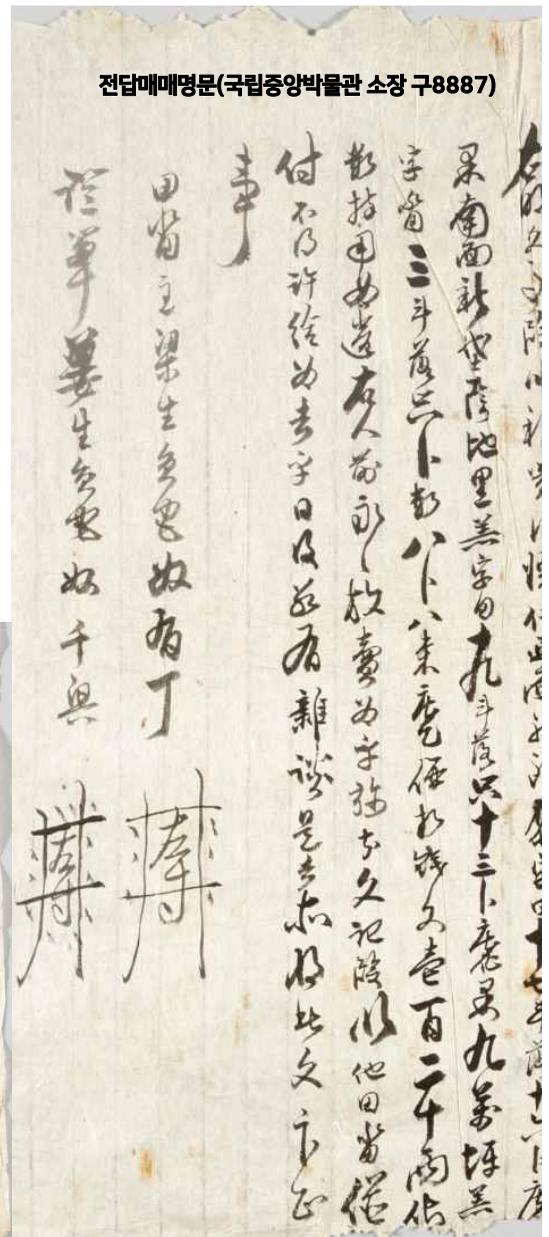


여기서 잠깐!

###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서명

양반 부녀만 ‘씨(氏)’로 호칭하고 도서(圖署)를 사용할 수 있다.  
 상민 부녀들은 ‘조이(소이, 조사, 소사 冢史)’라 칭하고 손도장만 찍는다.  
 -1606년 《병오호적(丙午戶籍)》

수결(手決). 수례(手例). 수압(手押)은 이름 글자 등을 변형하여 부호처럼 표현한 것. 요즘의 사인(서명)에 가까움.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손가락 마디를 문서에 대고 붓으로 둘레를 그린 수촌(手寸)이나 손바닥 전체를 대고 둘레를 그린 수장(手掌)을 사용. (권경열 2016: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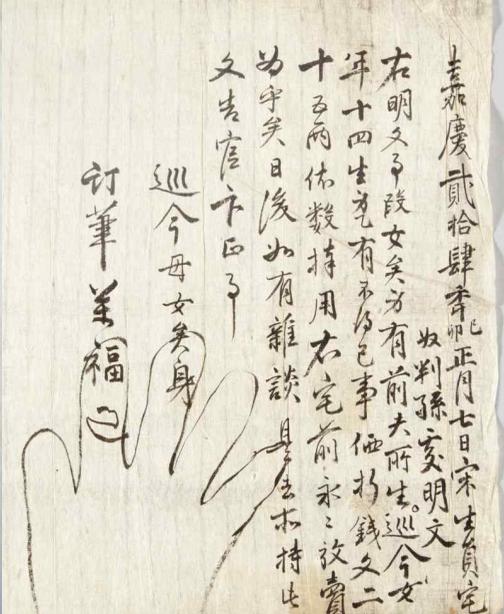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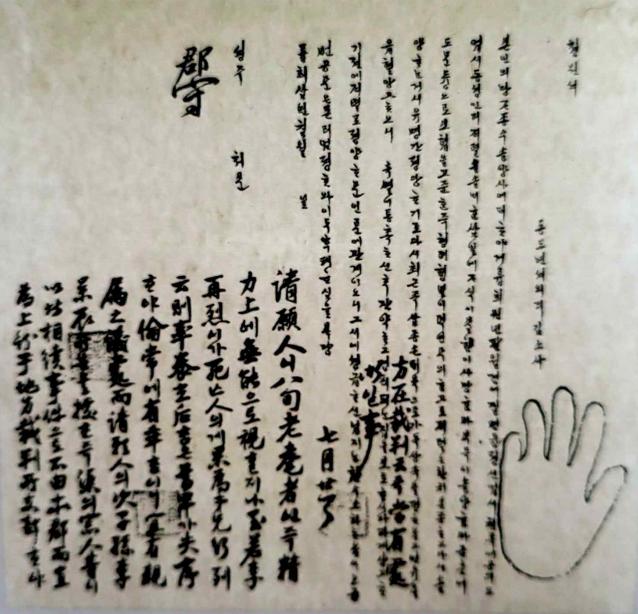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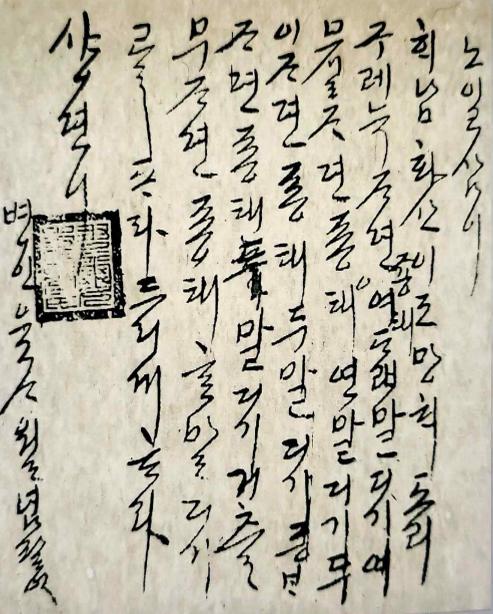


전담매명문(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구8887)

병인년 배자(상전 연안씨 → 노일삼이 / 녹우당 소장)

1909년 청원서(김소사 → 군수 / 국민대학교 박물관 소장)

노비매명문(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구8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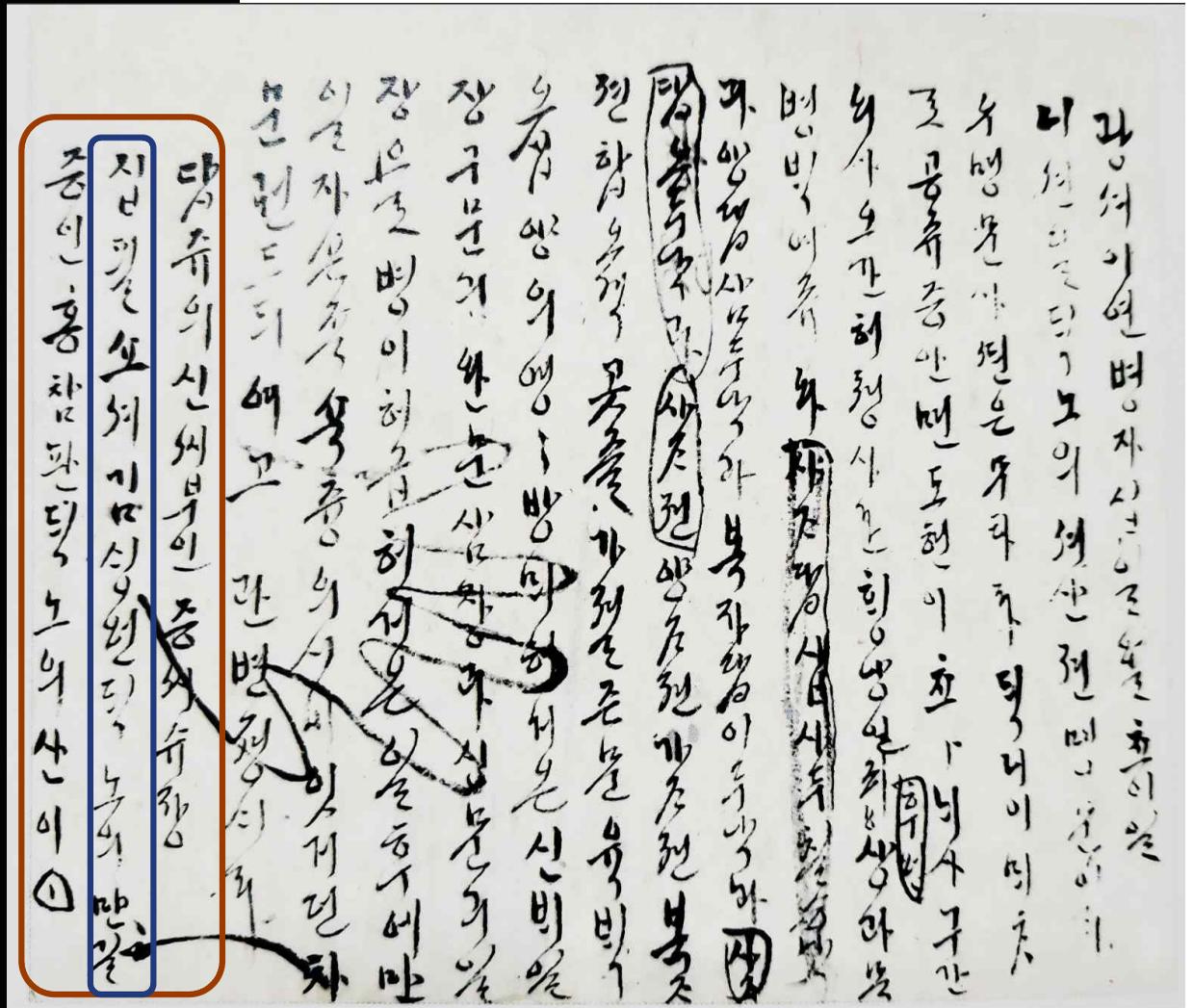


### 3. 매매문서

매매 대상 : 토지, 가옥, 노비 등

거래과정에 양반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수노(首奴) 또는 호노(戶奴)에게  
 배자(위임장)를 발급하여  
 대신 거래하도록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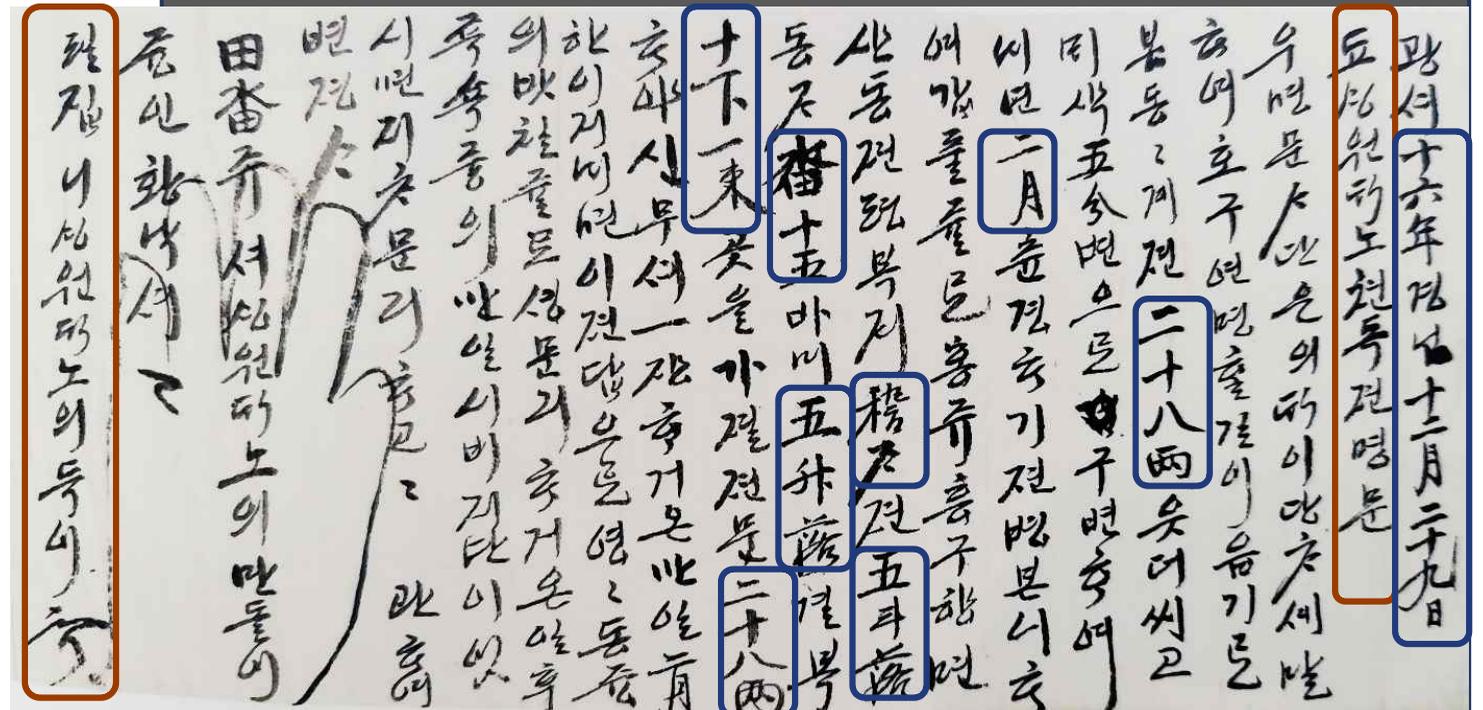
전담주인 : 신씨부인  
 매입자 : 이선달택 노비 서산  
 실매입자 : 이선달  
 필집 : 김생원택 노비 만길  
 증인 : 홍참판택 노비 산이



## 1890년 노 천득 명문

1890년 12월 29일 서생원 댁 노비 만들이 토지를 저당 잡히고 동계(洞契)에서 모은 돈 28냥을 빌린 내용을 기록한 명문. 만약 기한 내에 갚지 못할 경우 전당 잡힌 땅을 동계에 상납할 것을 약속함. 거래와 관련한 주요 사항인 작성일시, 차용금액, 토지 등은 한자로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특징

답주는 서생원댁 노 만들이[수장]  
 증인은 황낙서[수결]  
 필집은 이생원댁 노비 득이[수결]



1890년 노 천득 명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구6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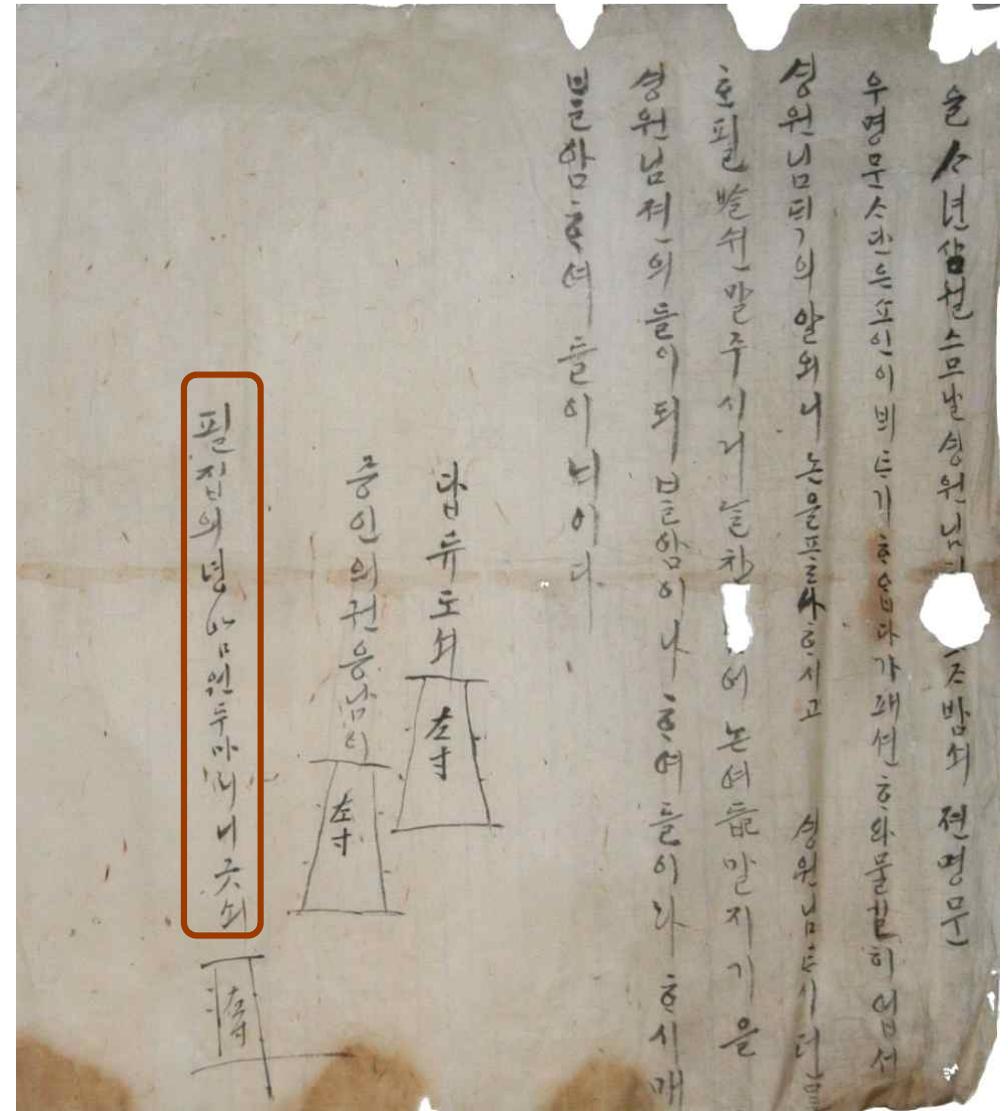
## 을사년 노 밤쇠 토지 매매 명문

을사년 3월 20일 생원님  
노자 밤쇠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인이 배타기를 하옵다가 배가 부서져 먹고 살 길이 없다가  
생원님에게 아뢰니 논을 팔라고 하시면서  
생원님이 타시던 말 1필과 쌀50말을 주심에  
이에 저의 논 8마지기를 생원님에게 드립니다.  
표식이나 작성하여 내라고 하시기에  
표식으로 이 명문을 작성해 드립니다.

답주 도쇠[좌촌]  
증인에 권응남이[좌촌]  
필집에 영암 원두마리 이긋쇠[좌촌]

부안 부안김씨 우반고문서  
소장처: 전북대학교 박물관  
이미지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문서자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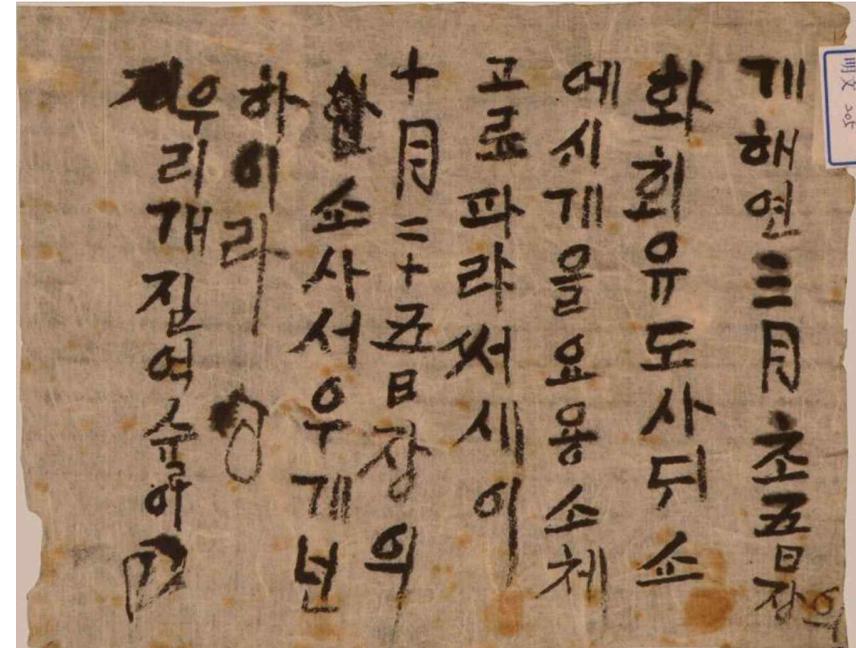
## 가축 매매 명문

계해(1803)년 3월 5일 장의 전

하회 유도사택  
소의 새끼를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팔아서 송아지를  
10월 25일 장의  
소를 사서 또 바꾸겠습니다

마굿간 청소 하인 억술이[수결]

이상규(2011), 『한글 고문서 연구』, 도서출판 경진.





1722년 김진창의 아내 홍씨가 최채약에게 고양 부원면에 있는 밭을 매도할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  
출처 : 수원광교박물관

## 한글 사용과 관련된 법규 (안병희 1992:240)

諺文及無訂筆者勿施 (『百憲摠要』 刑典, 文記條)

· 언문, 곧 한글로 된 문서와 증인과 필집인이 없이 작성된 문서는 정당한 문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

出債成文 必具證筆者聽理 諺文及無證筆者 勿許聽理  
(『受教輯錄』 戶典, 徵責條; 『百憲摠要』 刑典, 徵債條)

· 사채(私債)의 문서에 증인과 필집인이 없고, 또 문서가 한글로 되었을 때에는 채권을 인정하지 말라는 내용

역설적으로 이러한 법규를 마련했다는 것은 실제 한글로 된 문서가 상당수 작성되었고, 증인이나 필집 없이 작성된 문서가 작성되었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규가 만들어졌을 수 있음.

# 4. 청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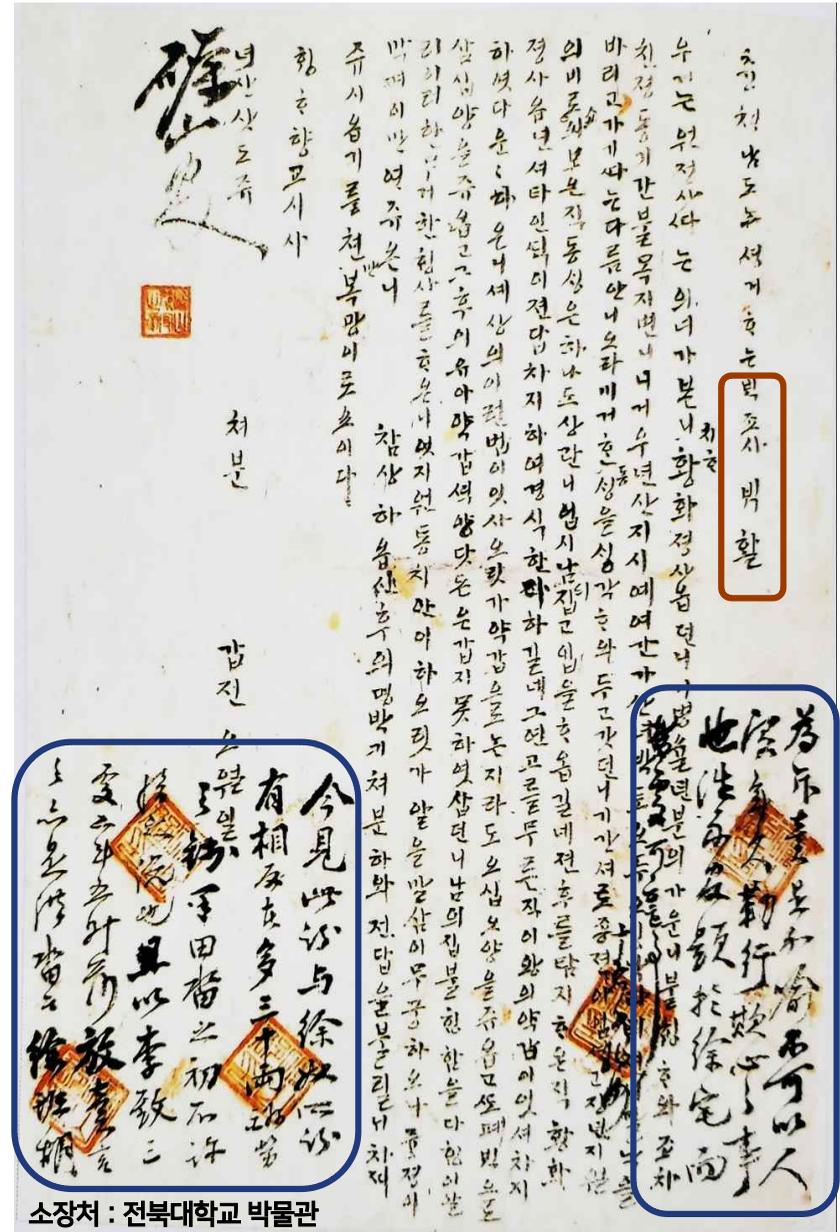
- 청원서, 진정서.
- 지방민이 지방관에게 억울한 일이나 사정을 정소(呈訴)
- 발괄 = 백활(白活)

1904년 백조사 백활

충청도 노성군에 살던 백조사가 전라도 여산군수에게 제출한 발괄.

백조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가로챈 서씨를 정소한 것으로 서씨로부터 9월에 다시 되돌려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서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답을 팔아버리자 다시 서씨가 살고 있는 전라도 여산 군수에게 이 발괄을 제출함. 약장수인 서씨는 백조사가 약값 3냥5돈을 감지 못한 것을 핑계로 백조사의 토지를 강제로 차지하여 팔아버려서 백조사가 민원을 제기함.

이상규(2011), 『한글 고문서 연구』, 도서출판 경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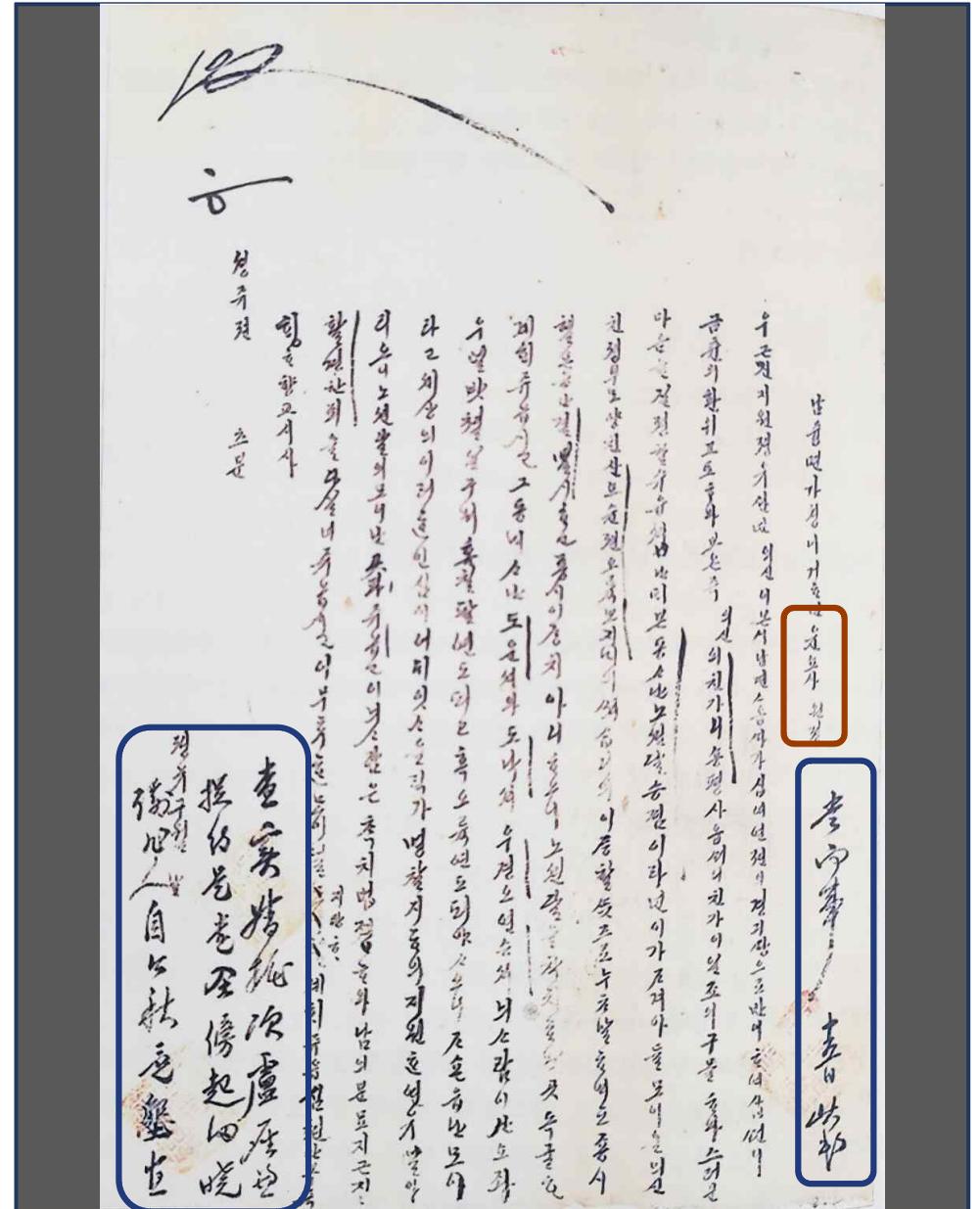


## 정유년(1837 또는 1897) 윤소사 원정(原情)

남중면 가경리에 사는 윤소사가 성주에게 발급한 원정문서. 윤소사가 노선겸 등 타인의 투장과 무단 경작을 이유로 관에 제출한 것

이렇게 삼가 원정하는 일은 이몸이 본래 남편과 함께 살다가 10여년 전에 경기 땅으로 옮겨가서 살더니 금년 봄에 옛땅으로 되돌아와본즉 이몸의 친가가 외송평에 살았는데 친가가 하루아침에 구결하여 서러운 마음 갈피를 다잡을 수 없었는데 본동에 사는 노선달 승겸이라는 이가 자기 아들 묘를 이몸의 친정 부모 양친 산소 순전 오륙 보경계 내에 썼기에 이장하라는 뜻으로 누차 말하여도 끝내 혈손이 없는 것처럼 연락을 끊고 끝내 이장하지 아니 하니 노선달이 무덤을 선 곳의 관을 파내게 해주시고 그 동네에 사는 조운서와 조낙서, 우경오, 연승서 네 사람이 산소 좌우의 평지밭을 일귀 경작한 것도 칠팔 년도 되고 흑 오륙 년도 되었으니 자손 없는 묘자라고 세상에 이러한 인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태를 똑똑히 살펴서 아리의 원하는 연유를 알리오니 노선달 자식의 묘 있는 곳을 파주시고 이 네 사람은 착취법으로 정하여 남의 분묘 가까이 경작한 죄를 다스려 주시고 이 후사가 없는 묘를 지탱하게 해주시옵기 천만번 앞드려 빕니다.

이상규(2011), 『한글 고문서 연구』, 도서출판 경진.  
소장처: 국립민속박물관



외지부(外知部)

## 5. 수표(手標). 수기(手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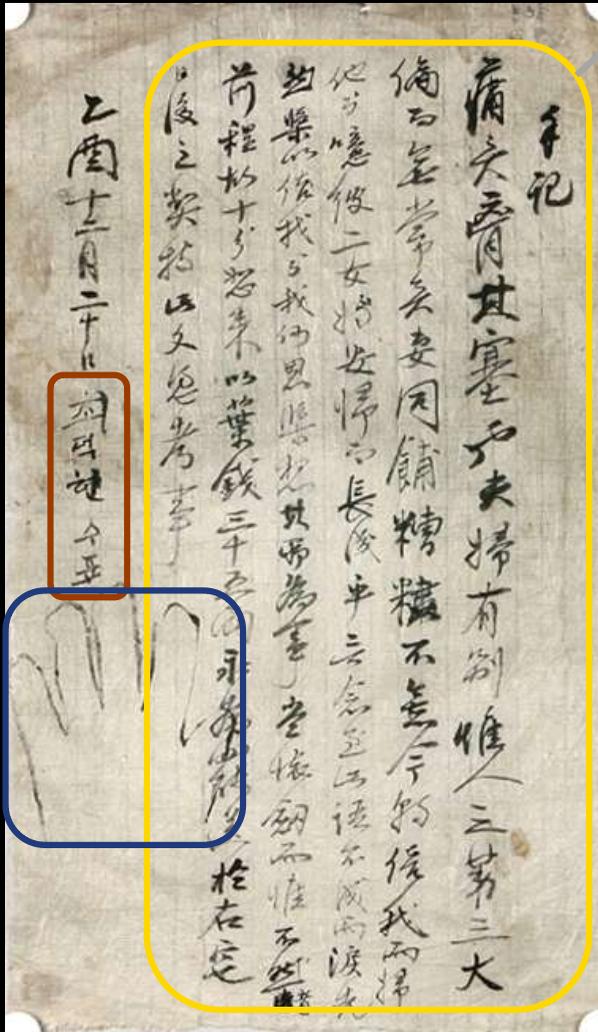
대차(값기로 하고 남의 것을 빌려씀)나 기탁(어떤 일을 부탁하여 맡겨 둠), 약속 등의 경우에 주고받는 증서(허원영 2022:49)

수기

애통하구나. 가슴이 미어진다. 부부유별(夫婦有別)은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중 세번째로 큰 윤리인데, 무상하게도 나의 아내는 그동안 나와 함께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동고동락해왔으나 뜻하지 않게 오늘 아침에 나를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다. 아, 그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저 두 딸은 장차 누구에게 의지해 자랄 것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말이 나오기도 전에 눈물이 흐른다. 그러나 그녀가 나를 배신했으니 어찌 내가 그녀를 생각하겠는가? 그녀가 나에게 한 행위를 생각하면 칼을 품고 가서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장차 앞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십분 생각해 용서하고 엽전 35냥을 받고서 영원히 우리의 혼인 관계를 파하고 위덕(宅)으로 보낸다. 만일 뒷날 말썽이 일어나거든 이 수기를 가지고 증빙할 일이다.

을유년(1825년 or 1885년) 12월 20일 최덕현 수표[수장]

전경목(2013),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16~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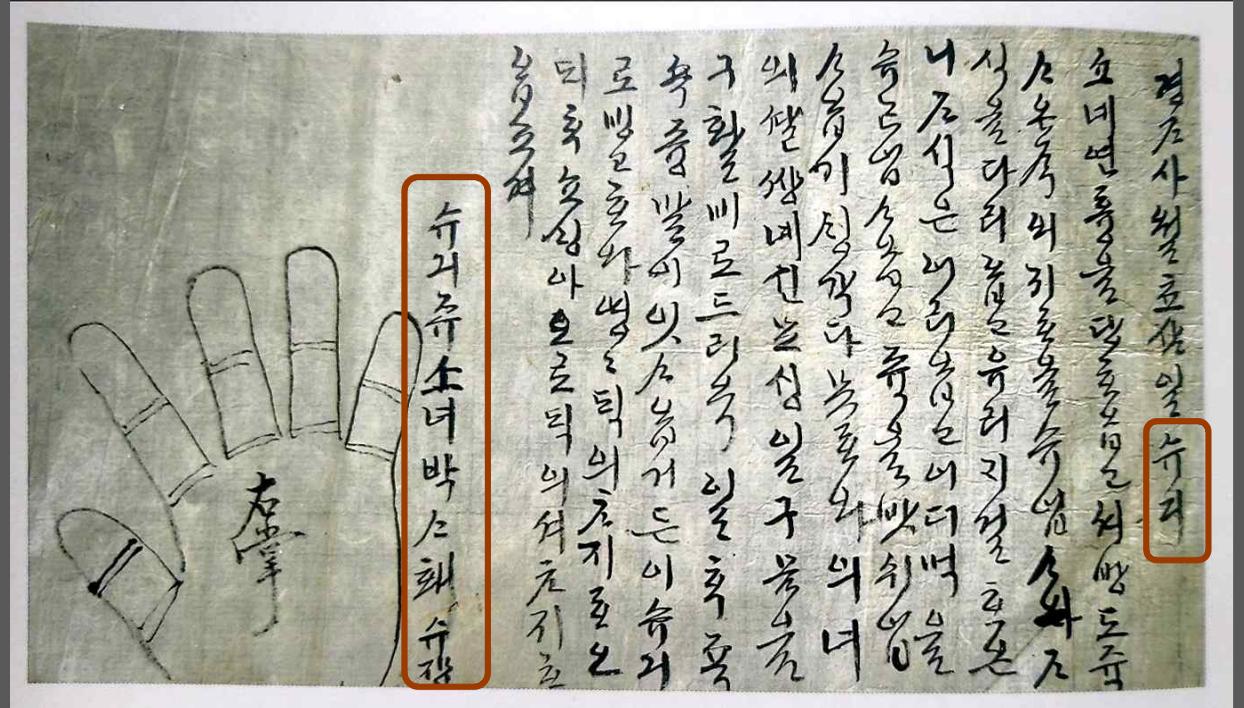
이미지 출처: 전북대학교 박물관

## 경자년(1840) 박사해 수기

경자년 4월 3일 수기

소녀가 연이어 흉상을 당하고 서방도 죽어 의지할 수 없어서 자식을 데리고 돌아다니며 구걸하여 빌어먹으니, 자식은 어리고 얻어 먹을 수는 없고 죽을 수밖에 없기에 생각하다 못하여 이몸의 딸 쌍례 신묘생 1구 물을 구할비로 드리오니 이후에 친척 중에 말이 있거든 이 수기로 증거를 삼아 영영 댁에서 차지하되 후소생도 아울러 댁에서 차지하소서.

수기 주(主) 소녀 박사해 [우수장]





## 6. 추수기(秋收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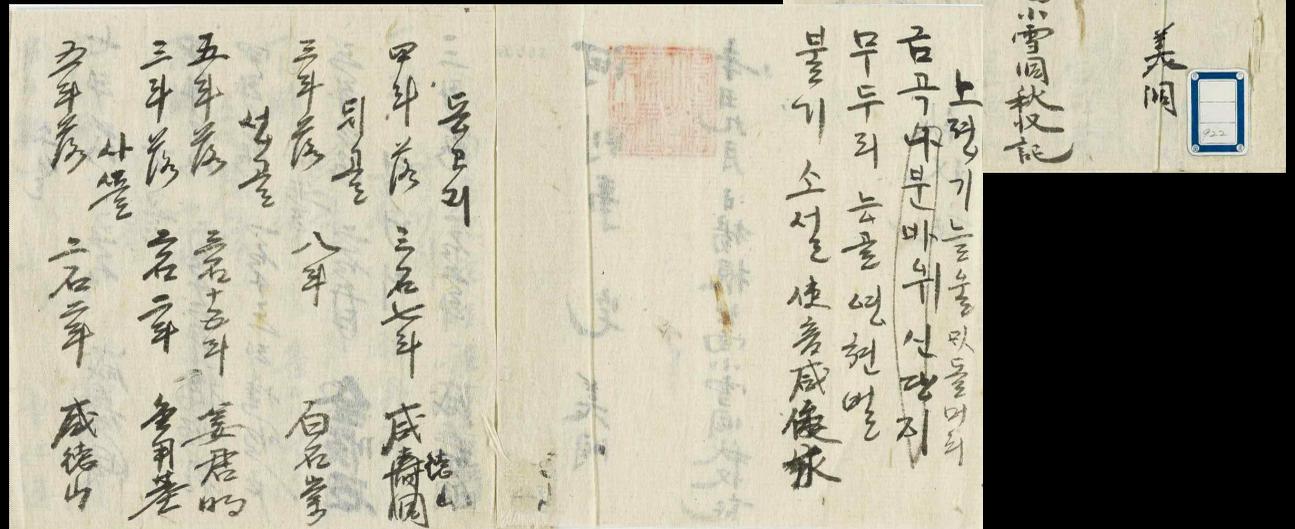
신축 구월 일 양근 북면 소설동 추수기  
(辛丑 九月 日 楊根 北面 小雪洞 秋收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소장

美洞에 거주하는 河判事宅이 소유한 경기도 양근군 북면 소설동의 토지에서 신축년 9월에 거둔 소작료 내역을 기록한 추수기.

양근군 북면에 있는 하판사 닥의 토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소작료를 징수, 상납하는 역할을 하는 마름은 소설동에 사는 함준영.

추수기는 총 8쪽으로 이루어져있다. 1쪽은 제목, 2쪽은 마름이 함준영이라는 내용. 3쪽에서 7쪽까지는 소작료의 구체적인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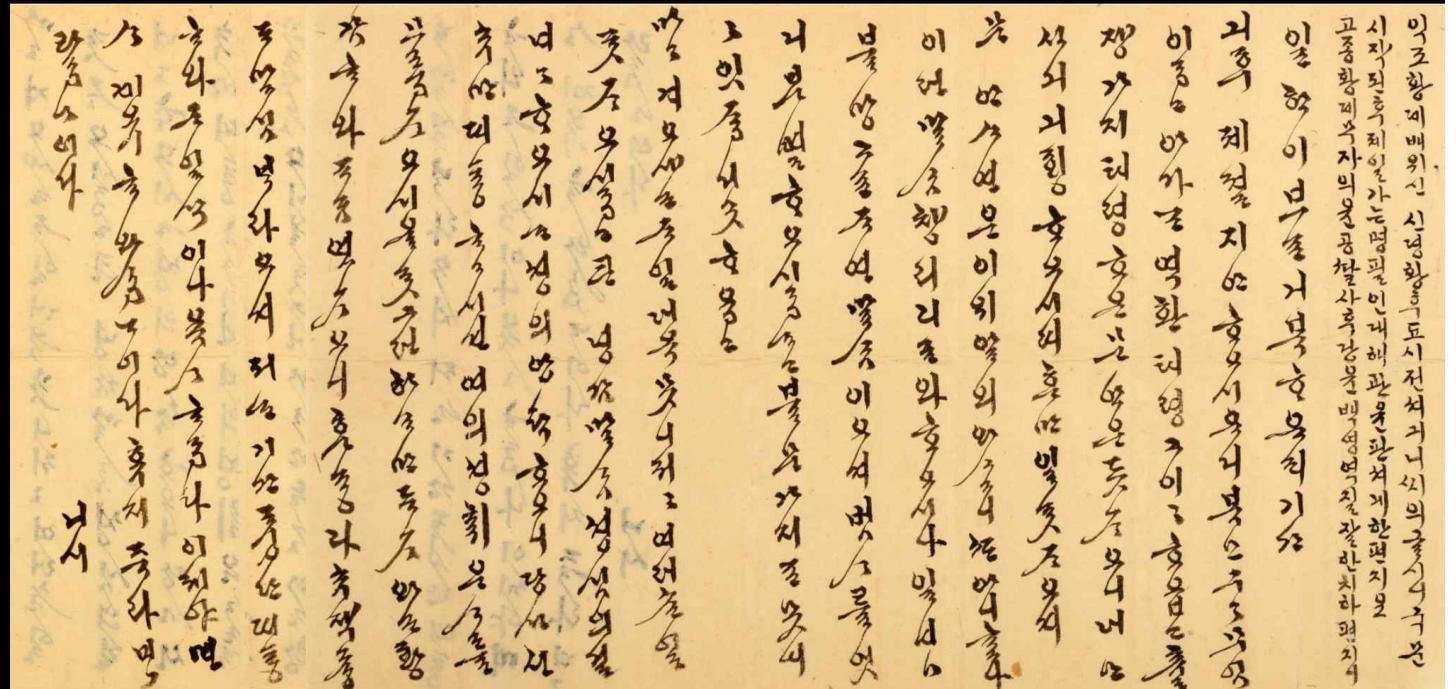
기재하는 방식은 우선 소작료 징수 방식에 따라 타조로 받는 토지와 도조로 받는 토지로 구분. 타조와 도조에 따라 각각의 토지들은 해당 토지가 위치한 들판별로 정리. 특기할 것은 들판 이름을 모두 한글로 기록하였다는 점. (이욱, 상세정보)



궁녀들의 글씨 연습에 대한 김명길 상궁의 증언글  
(양지원 2020: 402)

우리들은 우리들대로 누동궁에서 나온 상궁이 가르치는 한글 서예를 배웠다. 옛 선배 상궁들이 써놓은 점초나 당음을 보고 배우는 것인데 하루에도 흰 백지에 뿅뿅이 몇 장씩 써내야 했다. 동그라미를 붓 뚜껑으로 찍어 놓은 듯이 써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왕눈이 글씨라고 했다. 우리들이 쓴 종이는 스승 되는 누동궁 상궁이 채점을 해서 는 잘못 쓴 것은 어떻게 고치라는 말을 꼼꼼히 해주시며 나누어 주신다. 자세히 알려주어도 고쳐지지가 않으면 목침 위에 올라가 종아리를 건어야 했다. 한번 맞으 때마다 빨간 자국이 생기면서 눈물이 저절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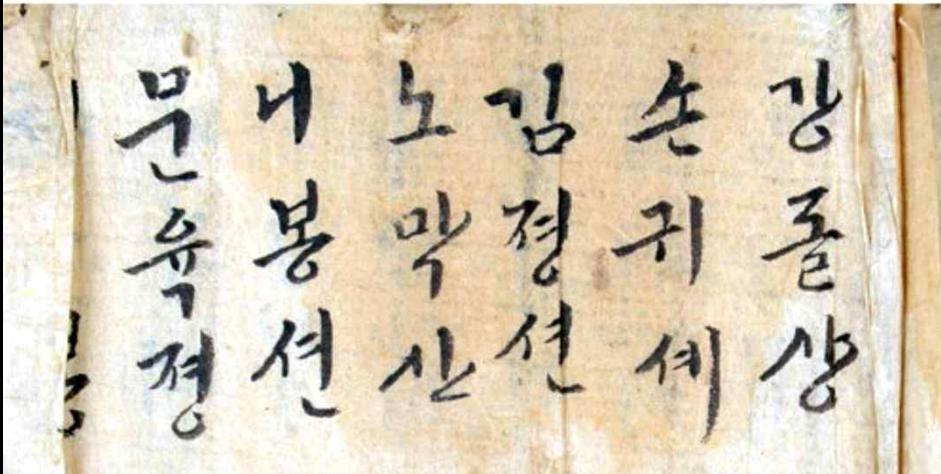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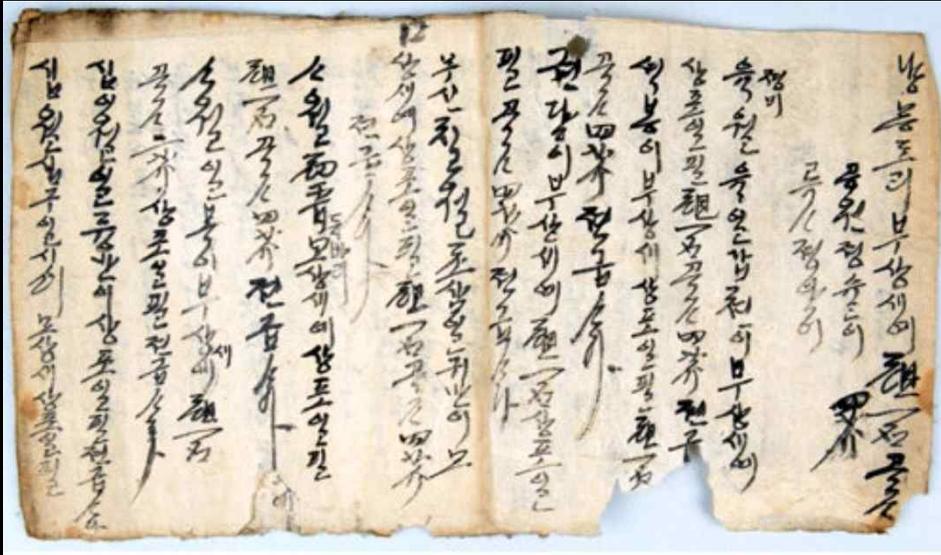
## 7. 궁녀의 한글편지



1888년 신정왕후전 궁녀 서기 이씨가 윤용구에게 보낸 편지.

이미지 출처: 디지털한글박물관

## 8. 상계(喪契) 문서



자료명 : 경남 진주 마진(麻津) 마을 상계(喪契) 문서  
 작성연대 : 18세기 중엽 ~ 19세기 중엽  
 지역 : 진주시 대곡면 마진마을 재령이씨 종가  
 수량 : 성책본 8책, 낱장 고문서 23장 등

- (1) 계안 2책  
 1774년~1783년 재령이씨 집안의 노비인 시삼, 만익 등 마진마을 평민과 노비들이 상사 때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상계를 결성하고 그 명단을 적은 문서(안승준 2016)
- (2) 치부책 3책  
 1800년대 초 중엽 마진마을 주민이 결성한 상계(喪契)에서 부모의 초상(初喪) 제사(忌日)에 부조한 물품과 그 액수를 기록한 문서
- (3) 전답 추수기(秋收記) 및 계금(契金) 이식(利殖) 치부기  
 19세기 초 중엽 마진마을 상계(喪契)에서 소유한 전답을 주민들에게 병작(竝作)을 준 뒤 추수 뒤에 소작료를 징수한 내역을 적은 문서

**상례 부조기**  
(喪禮 扶助記)

삼년상 뒤 첫 제사 때의 부조

- 戊申(1848) 五月初日
- 문복이 초기에 상포 40척에 소봉상이라
- 귀만이 초기(初忌)에 곡자 2개 주고
- 석봉이 초기에 곡자 1개 주고
- 독발이 초기에 나락 15두 주고
- 모질이 초상에 상포 20척(尺) 주고 나락 10두 주고
- .....

丁未十二月  
 중만이 초기에 곡자 2개 주고  
 戊申 五月初日  
 문복이 초기에 상포 40척  
 의 소봉상이라  
 귀만이 초기에 곡자 2개 주고  
 석봉이 초기에 곡자 1개 주고  
 달리 곡자 2개 주고  
 독발이 초기에 나락 15두 주고  
 모질이 초상의 상포 20척 주고  
 나락 10두 주고  
 슈반이 초기에 나락 10두 주고  
 홍수이 초기에 나락 10두 주고  
 귀만이 초기에 곡자 2개 주고  
 석봉이 초기에 곡자 1개 주고  
 달리 곡자 2개 주고  
 독발이 초기에 나락 15두 주고  
 모질이 초상의 상포 20척 주고  
 나락 10두 주고  
 슈반이 초기에 나락 10두 주고  
 홍수이 초기에 나락 10두 주고  
 귀만이 초기에 곡자 2개 주고  
 석봉이 초기에 곡자 1개 주고  
 달리 곡자 2개 주고  
 독발이 초기에 나락 15두 주고  
 모질이 초상의 상포 20척 주고  
 나락 10두 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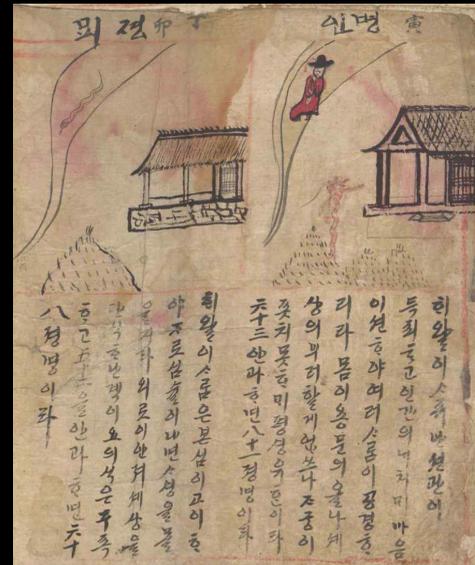
乙未三月十日  
 후적 2두  
 지막 2두  
 화제 2두  
 초창이 2두  
 비삭이 2두  
 시삭이 2두  
 함이 2두  
 슈저 2두  
 풍태 2두  
 홍수이 2두  
 홍수이 2두  
 명석의 2두  
 기막의 2두  
 일현의 2두  
 강악의 2두  
 철수의 2두  
 나찰의 2두  
 형수의 2두  
 만취 2두  
 후적 2두  
 단정인 2두  
 봉세의 2두  
 형악의 2두  
 일현의 2두  
 석봉의 2두  
 감현의 2두  
 기태의 2두  
 홍수이 2두  
 감이 2두  
 홍수이 2두  
 김태 2두  
 현의 2두  
 바회 2두  
 설의 2두  
 슈람의 2두  
 현의 2두  
 수삼의 2두  
 형태 2두  
 개농의 2두  
 화수의 2두  
 경석의 2두  
 중저 2두  
 형수의 2두  
 명현의 2두

소장처 : 재령이씨 마호당 종가  
출처 : 안승준 선생님 제공

## 9. 평생생일길흉법/남녀평생길흉법/당사주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민간에서 “당사주(唐四柱)”라고 불려온 사주책(四柱冊)  
중국 당나라 이허중(李虛中)이 체계화한 것  
사람의 생년월일시와 연관시켜 사람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서민들이 알기 쉽도록 그  
림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

출처 : 디지털한글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소식지 함박웃음 제9호



평생생일길흉법(국립한글박물관 소장, 한구413)



남녀평생길흉법(국립한글박물관 소장, 한구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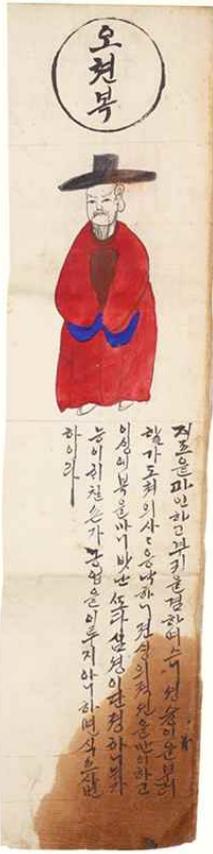


당사주(국립한글박물관 소장, 한구8031)

# 남녀평생길흉법 국립한글박물관 소장(한구 406)

당사주책은 대부분 그림 아래에 한글로 설명을 써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글 전용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사주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점쟁이와 같은 계층이었으니 한글이 훨씬 이해하기 수월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윤표 2013: 52)

출처 : 국립한글박물관 함박웃음 제9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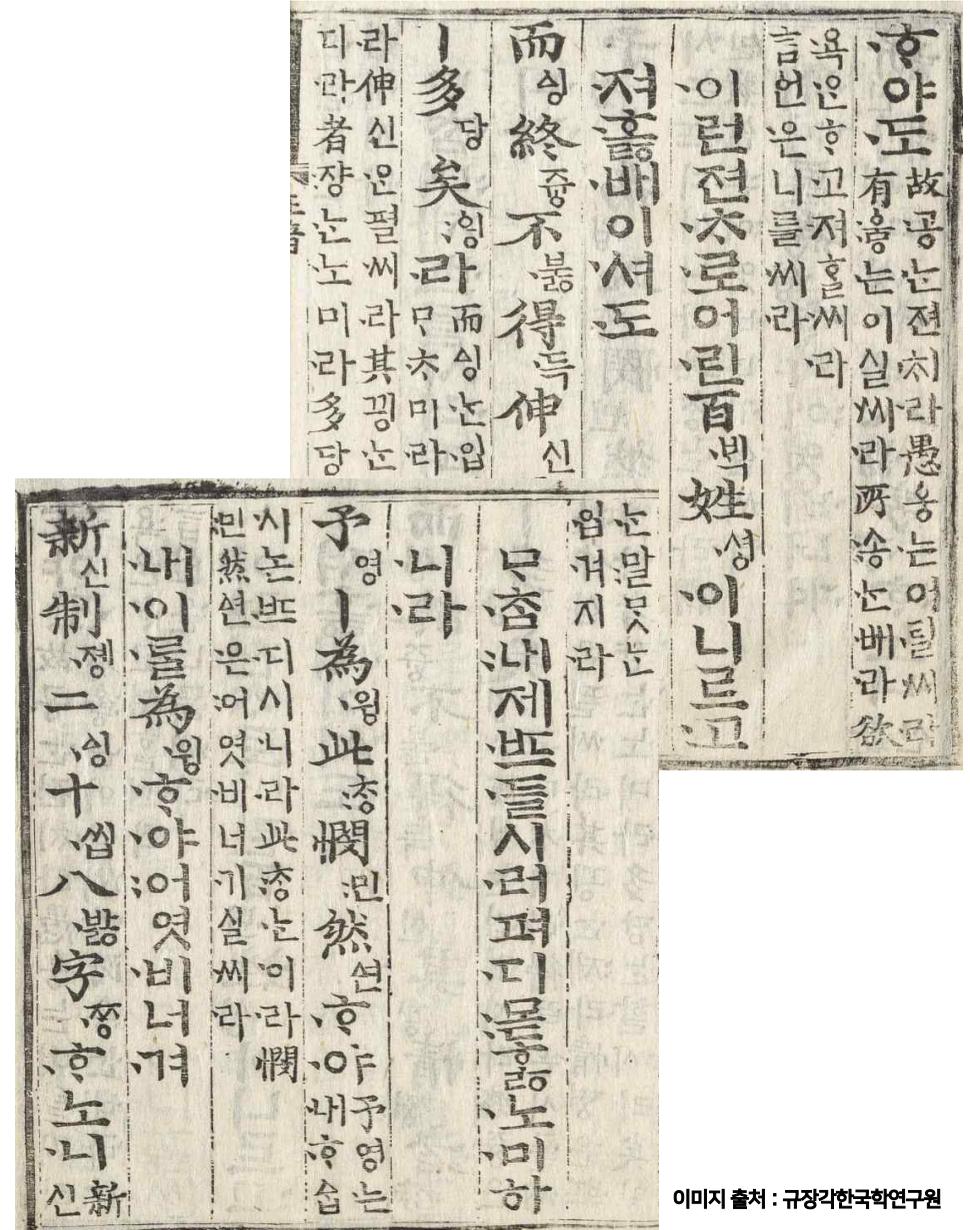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	평생운
해당 부분				
풀이	<p>재주와 부귀를 겸하였으니 부러워할 자가 없다. 전생에 적선을 많이 해서 이생에서 복을 많이 받는도다. 심성이 단정하니 누가 능히 해칠 손가.</p>	<p>위인이 출중하고 공직에 몸담을 사주다. 마음이 활발하니 도처에 권세가 많고 자신의 능력으로 재물이 따르나, 일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 근심이 있으리라. 자칫 늘 분주하게 되는 상이로다.</p>	<p>재주가 대단한 사람으로 용문의 어른 격이다. 만일 관록(官祿)을 먹지 아니하면 공장일을 할 것이라. 만인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널리 구제할 것이다.</p>	<p>사람이 재주가 있으니 변동이 많도다. 벼슬에 오를 상이며, 사람들을 널리 구제할 상이다. 귀인이 와서 도와줄 것이니 모든 일이 수월할 것이고 만인이 우러러 보는 격이니 활발한 남자로다.</p>

조선시대 중하층민의 기록은  
수량도 많지 않고, 대필의 가능성도 높으며,  
다른 인간처럼 생생한 구어적 표현은 없지만,

중·하층민들이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글로 기록했다는 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기록이라는 점  
버내쿨러로 작성된 문서가  
공적 문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단편적 기록이 곧 현실은 아니다  
기록은 작성자의 욕망과 보존자의 욕망이 결합된 일부가 남은 것  
기록의 또다른 이면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당대 실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수

단편적인 기록의 재구성,  
그리고  
남겨지지 않은 기록에 대한 해석은 과제



이미지 출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참고문헌

- 강문종 외(2020), 『조선 잡사』, 민음사.
- 권경열(2016), 「옛 생활 문서 쉽게 읽기」, 『역사자료총서 1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명문문기류』, 국립중앙박물관.
- 김일근(1986/1998), 『언간의 연구』, 건국대학교출판부.
- 노인환 외(2022), 『고문서에 담긴 조선의 일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도주경(2023), 『조선후기 노비의 계 조직과 운영-18세기 진주 마진마을 한글 노비계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회 제189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 문화체육관광부(2011), 『한글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사람들의 삶 - 한글 고문서 자료집』, (주)글로벌콘텐츠출판그룹.
- 안병희(1992), 『국어사 연구』, 문학과 지성사.
- 안승준(2016), 『노비가 쓴 한글 계문서』, 2016년도 장서각아카데미 역사문화강좌 자료집, 한국학중앙연구원.
- 양지원(2020), 「19세기 덕온공주가 왕실 한글 편지의 서체」, 『소장자료총서 7 덕온공주가의 한글 2』, 국립한글박물관
- 이상규(2011), 『한글 고문서 연구』, 도서출판 경진.
- 이상규·강이경(2013), 『한글 고목과 배자』, 도서출판 경진.
- 이하얀(2011), 「소장품 이야기: 평생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사주책 『당사주』」, 국립한글박물관 소식지 함박웃음 제99호.
- 전경목(2013),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 조영준(2016), 「조선말기 포전(布塵) 상인 배동혁(裵東赫)의 한글편지」, 2016년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강독회 발표자료집.
- 홍윤표(2013), 『한글 이야기 2 - 한글과 문화』, 태학사.

THANK YOU ♡ GRAZIE

Q&A

Jo Jeong-a  
hangeulletter@gmail.com